

장흥군, 민원 응대 공무원 심리 상담센터 운영 '호응'



폭언·협박 등 특이 민원 노출 심리 상담 필요 우울증 예방 돕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

장흥군이 대민 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정노동자로 분류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폭언, 협박, 폭행 등 특이 민원에 노출되어 있어 심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장흥군은 지난 5월부터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민원 응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

서 겪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장흥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민원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심리 진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심리상담센터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심리상담센터 운영으로 민원 응대 공무원의 정신적·심리적 피로감 해소 및 업무 대처 능력을 배양해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가을철 맞아 방문객 늘었다 가우도·강진만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

강진군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길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우도, 영랑생가, 고려저자도요지 등 주요 관광지의 9월 방문객은 81,353명이 방문하며 작년 동월 대비 3% 증가했다. 강진군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는 지난달 2만 8천여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 개통한 가우도 모노레일은 9월 말까지 총 8,100여 명이 이용했으며, 개전절 연휴(10.2.-10.4.)기간 동안 1,553명이 탑승하는 등 개통 50여 일만에 이용객 1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은 지난달까지 731명이 체험을 완료했다. 체험 대기자 수는 200명을 넘고 있으며 예

약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며 소규모 관광 프로그램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강진만 생태공원,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운동 월립 등 강진군 주요 관광지도 관광객 방문객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관광객 증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심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규모, 힐링, 자연친화 등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면서 "소규모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생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청정 완도' 건강한 먹거리로 해양치유밥상 개발

전복 해조류 떡갈비·색깔보리 톳밥·해조류 샐러드·전 등

완도군은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전복 해조류 떡갈비와 색깔보리 톳밥 등 청정 완도의 건강한 맛을 담은 '해양치유밥상'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완도는 청정바다에서 자란 수산물과 자연 그대로 농축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Marine Drugs)에 지난 4월 게재됐다. 이에 전복 내장과 톳을 넣은 전

복 해조류 떡갈비와 전복 내장 소스, 톳·미역귀·색깔보리를 넣은 색깔보리 톳밥과 제철 생선찜, 김장국, 해조류 샐러드, 해조류 전, 해조류 무쌈은 물론 완도 과일 음료 등 완도에서 나는 식재료로 해양치유밥상을 구성했다.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에서 추진하였으며, 미담외식창업연구소와 완도우리음식연구회장, 관내 음식점인 모래뜰이 완도 먹거리를 활용해 면역력 향상 및 몸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밥상을 만들고자 6개월간 많은 노력을 쏟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종 평가

에서 청정한 완도의 자연 속에서 해양 기후와 해수, 해풍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고, 해양치유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챙기는 데 그만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완도 해양치유밥상은 10월 5일부터 모래뜰(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 예정)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선한 재료로 하루 50인분만 준비하다 보니 최소 1시간 전 예약은 필수이다. 군은 해양치유밥상이 완도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밥상 매뉴얼을 내년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희망 외식업체에 보급하여 해양치유밥상 음식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치유밥상의 메인 메뉴인



'전복 해조류 떡갈비'는 지난 5월 열린 제22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모래뜰 최선이 대표 참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영농기 소형 농기계 구입 추가지원 6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농기계 대상으로 50%

해남군은 영농철 일손 절감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등 40여 기종의 다목적 소형농기계로, 6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농기계를 대상으로 50%(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농가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억원의 사업비를 긴급히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8~9월 배추정식, 9월 마늘파종, 10월 고구마 수확 등 가을 영농에 필요한 비닐피복기, 관리기, 땅속작물 수확기 등 농기계를 집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공직생활의 첫 출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도군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신규 공무원 18명 발령장 수여 멘토-멘티제 등 프로그램 운영

진도군이 2021년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18명에 대해 '신규 공무원 발령장 수여식'을 군청 대회의실에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군은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

과 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제 ▲진도바로알기 현장 탐방 ▲신규공무원 전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군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든지 최선을 다하는 진도군정 공직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새롭게 임용된 신규 공무원 18명은 본청과 읍·면에 배치되어 대민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